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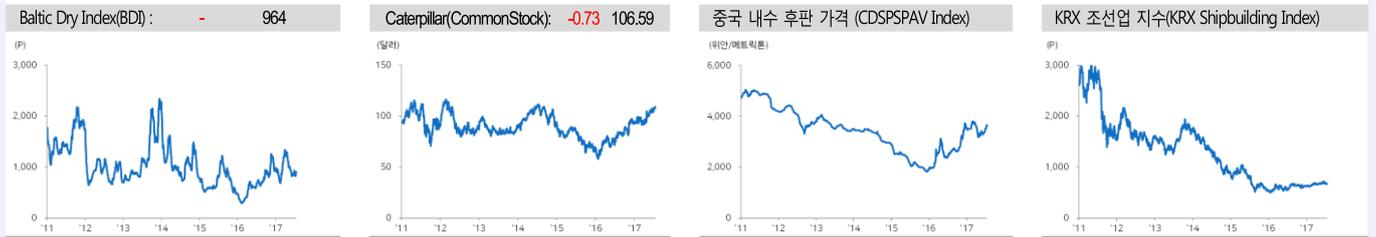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 업체명 | 시가총액 (십억원) | 외국인지분율 (%) | 증가 (원) | 1D (%) | 1M (%) | 3M (%) | YTD (%) | PER(x) | | PBR(x) | | ROE (%) | |
|----------|---------------|---------------|-----------|-----------|-----------|-----------|------------|--------|-------|--------|-----|---------|------|
| | | | | | | | | 17E | 18E | 17E | 18E | 17E | 18E |
| 현대중공업 | 10,058.1 | 20.5 | 177,500 | 1.7 | 1.7 | NA | 28.2 | 34.5 | 77.3 | 0.8 | 0.8 | 2.4 | 1.1 |
| 현대로보틱스 | 5,069.0 | 17.3 | 421,000 | 1.9 | 12.1 | NA | NA | 8.2 | 9.0 | 0.9 | 0.9 | 11.6 | 9.5 |
| 현대일렉트릭 | 1,207.6 | 8.7 | 325,500 | 1.7 | 4.2 | NA | NA | 15.6 | 16.1 | 1.4 | 1.3 | 9.1 | 8.1 |
| 현대건설기계 | 1,297.4 | 10.6 | 362,000 | -1.4 | 4.5 | NA | NA | 14.4 | 12.5 | 1.6 | 1.4 | 11.1 | 11.4 |
| 삼성중공업 | 4,758.0 | 20.0 | 12,200 | 2.1 | -5.1 | 15.6 | 31.9 | 61.9 | 132.0 | 0.8 | 0.7 | 1.2 | 0.6 |
| 대우조선해양 | NA | 2.9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17.6 | 9.1 |
| 현대미포조선 | 2,220.0 | 13.5 | 111,000 | 4.2 | -0.4 | 25.4 | 65.2 | 140.0 | 169.8 | 1.0 | 1.0 | 0.7 | 0.6 |
| 한진중공업 | 475.1 | 4.6 | 4,480 | 3.9 | -2.8 | 31.4 | 33.1 | -13.9 | 10.1 | 0.5 | 0.5 | -3.8 | 5.1 |
| 현대엘리베이터 | 1,443.5 | 28.9 | 58,600 | 0.2 | -4.2 | -2.8 | 2.1 | 8.9 | 7.9 | 1.5 | 1.3 | 18.7 | 17.5 |
| 두산중공업 | 3,468.6 | 24.2 | 34,600 | 1.3 | -1.7 | -7.7 | -3.5 | 15.2 | 13.9 | 1.0 | 0.9 | 6.6 | 6.7 |
| 현대로템 | 1,683.0 | 29.0 | 19,800 | 0.8 | -6.4 | -2.7 | 9.1 | 37.5 | 25.4 | 1.2 | 1.1 | 3.2 | 4.6 |
| 하이록코리아 | 317.2 | 46.2 | 23,300 | -0.9 | -7.5 | 8.1 | 10.4 | 12.2 | 10.8 | 1.0 | 0.9 | 8.5 | 9.0 |
| 성광벤드 | 288.9 | 13.4 | 10,100 | -1.5 | -1.5 | -3.3 | 14.0 | 32.6 | 18.8 | 0.6 | 0.6 | 1.9 | 3.2 |
| 태광 | 258.6 | 17.2 | 9,760 | -0.1 | 3.9 | 9.4 | 17.7 | 36.5 | 20.1 | 0.6 | 0.6 | 1.6 | 2.9 |
| 두산중공업 | 2,235.7 | 12.0 | 21,000 | 0.7 | -4.1 | -11.6 | -22.8 | 14.2 | 9.8 | 0.7 | 0.7 | 4.9 | 6.8 |
| 두산인프라코어 | 1,694.9 | 15.6 | 8,170 | 1.4 | -3.8 | -13.2 | -7.4 | 9.7 | 8.1 | 0.8 | 0.7 | 8.5 | 9.6 |
| 두산엔진 | 279.7 | 5.4 | 4,025 | -0.6 | -6.4 | 24.2 | 22.5 | 20.5 | 24.3 | 0.5 | 0.5 | 2.5 | 2.0 |
| 한국항공우주산업 | 4,912.7 | 23.3 | 50,400 | -1.2 | -14.1 | -19.0 | -24.8 | 20.6 | 17.2 | 3.1 | 2.7 | 15.9 | 16.9 |
| 한화테크윈 | 2,085.6 | 23.9 | 39,650 | 0.6 | -12.7 | -20.9 | -8.7 | 18.4 | 13.9 | 0.9 | 0.8 | 4.8 | 6.1 |
| LG화학 | 1,595.0 | 19.6 | 72,500 | 2.3 | -3.6 | -14.3 | -9.9 | 19.4 | 15.1 | 2.3 | 2.1 | 13.3 | 14.4 |
| 태웅 | 489.2 | 4.2 | 24,450 | -0.4 | -8.4 | -6.1 | 8.9 | NA | NA | NA | NA | NA | NA |
| 동성화인텍 | 166.5 | 2.9 | 6,170 | 0.5 | -4.6 | -8.7 | 7.3 | -28.7 | 12.3 | 1.5 | 1.4 | -5.1 | 12.0 |
| 한국카본 | 267.3 | 16.9 | 6,080 | -1.6 | -6.2 | -6.7 | 0.5 | 23.8 | 22.6 | 0.8 | 0.8 | 3.5 | 3.6 |

주: 커버리지 업체 PB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치수 123p, 중고선가치수 86p(-1p WoW) 기록

Clarksons 신조선가치수는 123p, 중고선가치수는 86p(-1p WoW)를 기록함. 2017년 누적 발주량은 375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기록함. 원유운반선의 경우 누적 발주량 117척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며 발주 회복을 견인하고 있음. (Tradewinds)

Dragnis books tanker order at STX Offshore & Shipbuilding

STX조선해양이 John Dragnis의 Oceangold로부터 MR Tanker 2+2척을 수주함. 선가는 척당 3,500만달러 수준으로 2019년 인도 예정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STX조선해양은 최근 국내 해운사들로부터 소형 Chemical Tanker 2+1척 수주에 성공한 바 있음. (Tradewinds)

KTB, KDB and Uni-Asia team up on ship finance

KDB산업은행, KTB자산운용, 일본의 Uni-Asia가 국내외 선박 금융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체결함. 3사는 KDB산업은행의 'Ocean Value-Up Fund'를 통해 선박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Uni-Asia는 선박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체투자자산 전문 운용사임. (Tradewinds)

Pace of developments is slowing but not stalled

미국 Gulf of Mexico에서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부 프로젝트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Shell의 Vito가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조선3사를 포함해 6개 업체가 Platform 건조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Chevron은 Anchor and Tigris의 Pre-FEED를 진행하고 있음. (Upstream)

North Africa in frame for Eni's massive platform

이탈리아의 Eni가 Fixed Platform 발주를 고려하고 있음. Eni가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Libya에 위치한 가스전 개발일 가능성이 높음. Eni가 연중 최종투자결정(FID)을 단행할 경우 2021년 생산이 가능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4분기 FID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Upstream)

Norway's PSA seeks meeting with Total over Martin Linge

노르웨이의 규제 당국인 PSA(Petroleum Safety Authority)가 Total에 Martin Linge 프로젝트를 관련된 미팅을 요청함. 최근 Total이 삼성중공업에서 진행한 Safety Review를 바탕으로 HSE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Topside의 출항이 1년 연기된 바 있음.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자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